

양육경영의 생산요소



김 정 주 교수
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양육업이나 경종농업을 불문하고 생산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을 주관하는 인간, 즉 노동력과 그 노동력의 활동대상이 되는 자연, 즉 토지, 그리고 토지를 대상으로 노동력이 작용하는데 필요한 보조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생산의 보조수단을 조달함에 있어 자본이 필요하므로 앞서 말한 토지, 노동과 자본을 합하여 생산의 3요소 혹은 경영의 3요소 또는 집약도의 3요소라고 부른다. 물론 이러한 생산의 3요소는 양육생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업생산에도 필요하다. 다만 양육생산은 공업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고 토지가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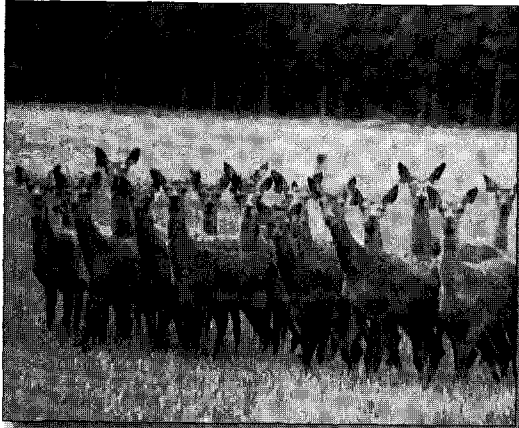
최근에는 위에서 말한 생산의 3요소 이외에도 경영을 생산요소로 간주하여 이른바 생산의 4요소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이는 그만큼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풍부한 생산요소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조합하는 경영능력이 없이는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1. 토지(농경지)

양육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한다. 이는 사슴의 사료를 생산하는 채초지, 방목을 위한 목초지, 종자를 받는 채종지 이외에도 축사나 사슴의 운동장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는 양육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산요소가 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토지를 하나의 투기대상으로 삼아 재산을 증식 하려는 왜곡된 현상이 팽배해 왔다. 따라서 일반용 토지는 물론 농경지 및 산지까지 가격이 상승하여 신규 양육경영자에게는 토지구입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



▲ 양록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한다.

정이다. 한편, 양록경영자가 양록부문에서는 실패해도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결국 이득이 생기는 파행적인 예가 많음을 볼 수 있다.

토지는 다른 생산요소와는 달리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토지는 적절한 방법으로 비옥도를 유지시키거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만 하면 가치가 소멸되지 않는 영구적인 생산요소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개간, 배수, 운작, 관개 등의 방법을 통해서 토지의 생산력을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양록경영에 있어서 경작지나 채초지, 방목지의 지력유지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할 경우 토지의 생산성이 떨어져 결국은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2. 노동력

노동력은 토지와 더불어 양록경영의 본

원적(本源的) 생산요소이다. 여기에서 본원적이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는 다음에 말한 기계, 기구 등 자본재는 노동의 생산능력을 높이는데 지나지 않으나 진정한 의미의 생산은 노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이야말로 양록생산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양록에서는 노동력의 질에 따라 생산성의 차가 엄격한 경우가 많다. 이는 살아있는 생물을 애정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민감한 사슴을 다루는 양록에 있어서 노동의 질은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사슴은 관리자의 관리방법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양록 경영에 있어서 노동력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양록경영에서의 노동력은 살아있는 작물이나 양록산물의 생산과 같은 유기적 생산을 다루기 때문에 생산의 속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없고 노동과정에 연속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종류가 부단히 반복되므로 특수한 기술적 숙련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의 기계화도 어렵게 한다. 또 양록경영에 있어서는 장소를 옮겨가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계의 사용이 불편하고 감독이 곤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양록경영에서의 대부분의 작업은 힘이 많이 드는 중노동성(重勞動性)이 있으므로 이미 전호에서 설명한 바

있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따라서 양육경영은 일반 공업경영에 비하여 불리한 입장이 된다.

양육경영에서의 노동력은 크게 자가노동력과 고용노동력으로 구분된다. 자가노동력은 고용노동력에 비하여 노동의 질이 우수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조치에 활용할 수 있으며 부녀자 노동 등의 영세하고 단편적인 노동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자가(自家)노동력은 양육경영에 있어서 노동의 수요와는 무관하게 존재하고 증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농장에서의 작업량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자가노동력은 보유되어야 하므로 자가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계비는 고정비용의 성격이 농후하다. 그 이외에도 양육경영에서의 자가 노동력 보수는 노임으로서가 아니고 경영성과로 수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가



▲ 양육산업은 노동력의 질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다.

노동력은 양육경영자에 대해서 비용이 아니고 소득의 원천이 된다. 물론 기업적인 농장에서는 자가노동력에 대해서도 이를 인건비로 계산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부분 가족 중심의 양육경영에 있어서는 자가노동력에 대한 보수는 일일이 비용으로 계산하지 못하고 연도말 결산 과정에서 산출되는 소득액 속에 포함시켜 파악한다.

여기에서 또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자가노동력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육을 경영하는 주인이나 그 가족의 개인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다양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기회비용도 서로 다르게 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육경영에서 이러한 자가노동력을 평가하는 일이란 그리 쉽지 않다. 현재는 그 지역의 평균노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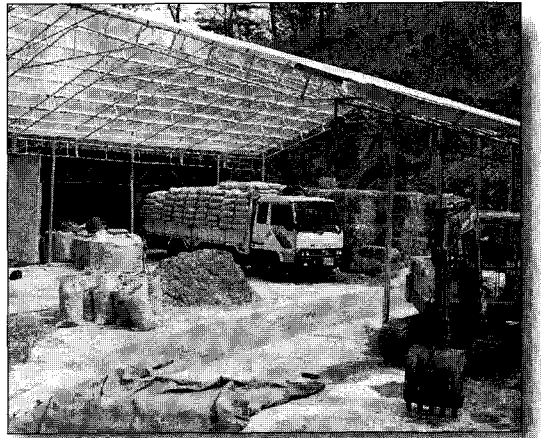
3. 자본재

자본재라함은 과거에 노동의 결과로 생산되었고 앞으로 생산수단으로 사용될 재화 즉 생산된 생산수단이며 인간의 욕망을 최종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소비재와는 구분된다. 예를 들면 번식용 사슴은 자본재로 분류되고 생산된 녹용은 소비재로 분류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자본재를 좀 더 자세히 분

류해 보면 크게 고정자본재와 유동자본재로 다시 구별된다. 여기에서 고정이나 유동이냐의 기준은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준한 것이 아니고 생산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고정자본재는 축사, 농기계, 종록, 초지, 과수나무 등과 같이 생산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를 말하고 유동자본재는 사료, 비료, 종자, 농약 등과 같이 1회 생산에 쓰임으로서 그 형태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같은 사슴이라도 씨를 받기 위한 종록은 고정자본재이나, 비육시켜 사슴육을 생산할 목적으로 구입한 사슴이 있다면 그것은 유동자본재가 된다. 이러한 자본재를 평가하는데에도 역시 그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흔히 취득가, 시가(市價), 추정가, 수익가 등이 그 기준이 된다. 취득가는 그 자본재를 취득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것을 그것의 평가액으로 삼는다는 뜻이고 시가는 실제로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가격을 평가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며 추정가는 이러한 자료가 분명치 않을 경우 그것과 유사한 재화의 취득가격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끝으로 수익가는 그 재화로 하여금 발생되는 실제수익을 그 재화의 평가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설물과 같은 특정한 고정자본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기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 자본재의 감가현상은 생산물의 생산비용이 된다.

보인다. 자본재 중에서도 고정자본재는 생산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유지, 보존하는데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종록, 목초지, 농기계, 축사 등을 유지, 보존하는 데는 사료비, 유지수선비 등 실제 지불되는 비용이 든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감가상각비와 자본이자와 같이 실제로 지불되는 것은 없으나 지불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비용이 있다. 즉 고정자본재는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그 가치가 점차 하락하기 때문에 이를 해당 생산에 드는 비용으로 계산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감가(減價:가치가 떨어짐)가 일어나는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물질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로 구분한다.

물질적 감가는 다시 기계 등을 사용함으로써 소모되는 감가와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가치가 소멸되는 감가로 구분된다. 기



능적 감가는 새로운 기계가 발명되어 그 기계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거나 양육경영 규모가 커져서 종래의 시설이나 설비가 쓸모가 없어지므로 생기는 자본재의 감가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감가현상이 생산물의 생산비용이 된다. 예를 들면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양육 농장이 그 규모가 확장되어 트랙터를 구입했을 경우 경운기는 더이상 쓸모가 없고 방치해 두거나 헐값에 중고품으로 팔아야하므로 그만큼 농장의 생산비용은 많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정액법(직선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매년도 감가상각비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즉, 매년의 감가상각비=(최초구입가격-폐기가격)÷내용년수이다. 예를 들면 150만원에 구입한 경운기를 7년 정도 쓸 수 있고 7년 후에는 고물값으로 10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면 매년도에 경운기 감가상각비는 20만원『(150 만원-10만원)÷7년=20만원』이 된다. 자본재 중에서도 사슴과 같은 유기적 자본재는 기계의 감가상각비 계산과는 달리 몇 가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사슴은 그 생산능력이 즉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야 생김으로 고정 자본재의 생산능력이 생기기 이전 구입가격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최초 생산령에 도달했을 때의 가격을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후보종록을 100만원에 구입하여 10개월간 육성시킨 후 녹용생산을 시작하였다면 이 사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100만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록 가격(약 150만원)을 고정자본재 구입가격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 밖에도 최근처럼 물가상승이 심한 상황에서 내용년수가 많은 건물이나 구조들의 최초 구입가격 또는 신축가격을 계속 사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는 구입가격보다는 고정자본재의 새로이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가격(신조(新造)가격)을 사용하기도 한다.

즉,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새로 만들 경우 시가로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인가를 조사하여 그 가격을 감가상각비 계산시 구입가격으로 쓰고 있다.

끝으로 자본이지는 고정자본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기회비용에 해당된다. 앞의 예에서와 같이 경운기를 한대에 150만원 주고 구입하였다면 사실 150만원을 다른 용도에 투자함으로써 이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경영을 위하여 경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다른 용도에 투자할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기회비용도 생산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의 기회비용은 양육경영자의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그 평가에 문제가 있음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한국양육**